

특별기획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원광대채용설명회·금융교실 개최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지부장 송기무)와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지난 28일 오후 5시 30분부터 약 100분에 걸쳐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에서 금융기관 취업반 학생 약 2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NH농협은행 채용설명회를 겸한 행복채움금융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NH농협은행 행복채움금융교실은 원광대학교의 금융 NCS스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현재 농협은행에 근무 중인 김혜수 동문(2012년 원광대 역사교육학과졸)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 근무)이 직접 강사로 나서 금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NH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취업 전략과 면접 요령을 재미있게 설명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군산시는 29일 2017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장 3곳을 방문했다.

이날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은 평생학습관 설치사업과 내항 해양관광자원개발지구 정비사업, 장애인 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 사업지 현장방문을 통해 군산시의 역할 추진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17년 본예산 편성이 본격화되는 10월부터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에 대한 관계자 설명 청취와 의견제출의 시간을 갖는다.

위원회는 통해 의결된 사항은 2017년 본예산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다.

익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지방세 체납징수 사례발표 최우수상 '수상'

군산시가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군산시를 비롯해 6개 지자체를 시정, 발표완성도, 토론대응력, 청중반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을 결정했다.

군산시 발표자로 나선 징수와 징주의 주무관인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권 압류를 통한 체납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세환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다각적이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체납세 징수 마무리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익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중앙지구대 4대 사회악 근절 홍보 활동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지난28일 모현동사무소 및 상가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경찰서에서 자체 제작한 전단지 를 상가 및 주민들에게 배부하여 주며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경각심 및 신고방법을 설명하여 주는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4대 사회악 및 경찰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기를 약속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근대·현대·미래의 소통

군산시간여행축제, 오늘부터 내달 2일까지 원도심 일원서 개최

국내 최대의 근대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근대와 현대, 그리고 미래가 소통하는 신명나는 한마당 축제인 '2016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오늘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군산근대역 사박물관 및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군산시간여행축제는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낸 거리 페어이드와 어린이 독립군, 쫓고 쫓기는 각시탈 등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forever 대학교제, 번시와 함께하는 타임슬립 고고장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미해 한층 풍성하고 볼거리 넘치는 축제로 한 단계 더 성장 발전을 꾀했다.

군산시는 이번 축제의 주안점을 시민과 관광객들의 참여와 체험형 축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개막식 주제 프로그램인

3·5만세 페어이드는 근대복장을 입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해 해마갈에서 축제장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페어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페어이드는 구간별 주제가 있는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큰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막 공연 '1980. 군산의 하루'는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중심지인 군산에서 일어나는 하루의 사건을 전 문배우와 뮤지컬팀이 재현해 당시 독립에 대한 간절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게임을 통해 역사적 교훈을 느낄 수 있는 쫓고 쫓기는 각시탈과 어린이 독립군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추진한다. 어른들에게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 일으킬 프로그램으로 forever 대학가

요제와 번시와 함께하는 타임슬립 GOGO장을 새롭게 기획해 축제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객들이 군산에서 체류하며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근대 앙코르 동춘 서커스를 축제기간 3일 내내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근대건축관 인근과 초원사건관 등에서는 축제기간 내내 각종 공연이 펼쳐질 예정으로, 축제기간 군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개막식에서는 그동안 군산시가 관광산업으로의 진입을 위해 개발한 대표관광지 브랜드 선포식도 함께 거행될 예정이다.

익산=문정곤기자

고군산군도·금강자전거길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 선정

선유도·금강·서해바다 함께 조망 라이딩 체험 명소 각광

행자부에서 공모한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군산의 고군산군도 자전거길(신시도~장자도)과 금강자전거길(금강하구둑~군산의산경계)이 선정되어 자전거 라이딩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고군산군도와 금강자전거길은 지난해에도 한국관광공사 주관 자전거 여행길 30선에 선정될 정도로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이다.

고군산군도 자전거길은 총 12km 코스로 예쁜 자갈들로 이루어진 몽돌해변과 대각산을 지나 세계 최장(L=400m)의 1주탑 현수교로 뜻을 형상화한 고군산대교를 건너 무너도와 선유도를 잇는 연육교를 통해 선유도로 갈 수 있다.

주요 코스는 선유도 선착장~명사십리해변~망주봉~기도등대~전망데크~몽돌해수욕장~전망대~장자교~대장도~장자마을~선착장~선유도이며, 선유도에는 바다 위를 나는 선유 스카이다이빙의 짜릿한 체험도 경험할 수 있다.

금강 자전거길은 금강하구둑~금강호휴게소~금강철새조망대~나포십자돌~공주산-익산 경계까지 이어지는 총 16.2km로 1시간 40분정도 소요



되며, 군산과 서천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금강과 서해바다를 함께 조망하며 라이딩 할 수 있는 명소다.

금강호 휴게소에는 고려 말 최무선이 우리나라 최초로 화포를 사용하여 왜적을 무찔러 승리한 진포대첩비가 있고, 생태학습장인 어로도 구경할 수 있다. 타류소설로 유명한 체민식 문학관도 둘러 볼 수 있다.

다음 코스인 금강철새조망대는 금강 생태습지공원이 위치해 있어 금강을 바라보며 한적한 갈대숲 길을 산책할 수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많은 곳이다.

또한 나포십자돌에 자전거길은 철새

를 관찰할 수 있는 탐조화합이 있어 가까이에서 철새를 관찰할 수 있으며, 겨울철 해질녘에는 50만 마리의 철새들이 군무를 이루는 황홀한 장관을 볼 수 있다.

군산·익산 경계에 위치한 공주산은 고조선 준왕이 위민에게 패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곳으로 준왕 땅이 머물렀다고 하여 공주산이라 불리며, 공주산 데크 자전거길은 바다와 금강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632)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문정곤기자

원광대병원-러시아 내소닐 방사선 의료연구센터 MOU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러시아 연방 내소닐 방사선 의료연구센터(National medical research radiological centre)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원광대병원 문화센터 4층 회의실에서 최두영 원광대병원장 내소닐 방사선 의료연구센터 안드레이 카브린(Andrey Dmitrievich Kaprin) 센터장을 비롯 연구소 직원, 한국주재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 일행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우호협력병원 협약 체결을 마쳤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의학 교육 및 노인학 분야와 새로운 치료 방식, 재활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해 교류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의 의료진 및 연구원간 상호 교류와 연수, 강의, 연구, 화상진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상호 발전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동참, 의료기술 정비 증진을 위한 관련 정보도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내항 해양공원 조성공사 준공

군산시가 국토부 지원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진포해양테마공원과 연계한 내항 해양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산시는 진포해양테마공원 주변 휴식공간 부족으로 인한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장미동 1-4번지 일원 해양수산청 부지(2300㎡)를 활용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 3개월간 공사를 마치고 명품 휴식공간 조성을 마무리했다.

새롭게 조성된 내항 해양공원은 다양한 나무와 푸른 잔디 등 수목식재와 포토벽 조성, 막구조물, 광장, 경관조명을 설치해 주·야간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시는 군산여행 추억사진 공모를 통해 500여점의 사진을 접수받아 포토타임을 제작, 포토벽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토벽 사진을 제공해 준 관광객들에게 포토벽 설치를 알리는 안내문 및 사진을 시간여행축제 홍보물을 함께 발송해 군산시 홍보와 함께 재방문을 유도하고 포토타임을 우편으로 보내줘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내항 해양공원이 근대역사박물관과 진포해양테마공원과 함께 관광 명소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문정곤기자

원광대, 대한민국지속가능성보고서상 1등 선정

원광대학교가 한국표준협회 주관 2016 대한민국지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 최초보고서 부문 1등 상을 수상했다.

한국표준협회는 지속가능성 전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의 발굴·포상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글로벌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둔 KRCA(대한민국지속가능성보고서상)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우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최초보고서 부문 1등 상을 수상한 원광대는 지난 7월 지속가능 경영 성

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해 국내 대학 최초로 국제 가치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 최초보고서 부문 1등 상을 수상했다. 이행 수준 최고 등급 획득에 이어 이번 평가를 통해 우수보고서에도 선정됐으며, 28일 서울 리츠칼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장과 상패를 받았다.

원광대는 앞으로도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으로써 지역과 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하림, '지역경제 활성화' 대통령 훈장 수상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은 "정호석 기획조정실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훈장(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난 28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2016년도 지역희망박람회' 시상식에서 정호석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대규모 시설투자유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북지역 인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對美 對中 對日 삼계탕 수출을 위한 주도적 역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통령 훈장을 수상했다.

정호석 상무는 국내 최대의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림의 초창기 사업장개 시켰던 1989년 3월에 입사한 하림 성정의



산 증인으로 하림의 발전과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지역 내 우수인재 유치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사업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인지에라 신규 사업 발굴 및 신규투자 확대에 적극 관여하여 회사의 부문별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고용노동부군산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고용노동부군산지청(지청장 금정수)은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관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4년(123명), 15년(135명), 16년 9월말(128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에는 적발시스템에 의해 조회된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유보하고, 추가징수 면제, 행사고발 면제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할 방침이다.

이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4대보험 전산망 등 모든 적발시스템을 가동하여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군산지청은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사업주와 실업급여수급자 공모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금액에 대하여 100% 추가 징수되며, 사업주 공모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형사고발 된다.

익산=문정곤기자